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교육

매튜 맥스웰



부드럽고 미끈거리는 히드라리스크의 혀가 손바닥 위를 가로질렀다. 무수히 많은 근육이 파도처럼 잔물결을 일으키며 하나가 되어 미끄러졌다. 꼭 군단 같군. 로우 박사는 생각했다. 무수히 많은 생물체가 단 하나의 뜻에 결속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혀끝이 창백한 손가락 사이에 늘어진 고깃덩이를 휘감았다.

"기다려." 로우가 명령조로 조용히 말했다.

낚시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혀가 반대쪽으로 당겨졌다.

히드라리스크는 뺨에 있는 숨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 고기를 잡아끌었다.

관찰실에 있는 사람들은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과학자와 장관들은 이미 집중력을 잃고, 눈앞의 광경 대신 각자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로우 박사와 괴물의 줄다리기에 경이를 느끼는 대신, 나중에 터트릴 불만들의 긴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히드라리스크는," 로우가 말을 이었다. "저희가 입수한 프로토스 기록에 따르면 슬로시엔이 초월체에 의해 강제로 진화된 존재입니다. 슬로시엔은 보통 '애벌레 소'로 알려져 있으며, 무시무시한 그들의 후손과는 거의 닮은 점이 없습니다." 과학자나 관료들에게는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괜찮았다. 대중은 외계 생명체란 모두 두려운 존재이며, 자치령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기다려." 로우는 명령했다.

단호하게, 붉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생명체의 몸은 그녀 키의 두 배 가까이 컸다. 로우가 가진 것은 목소리뿐이었다. 훈련을 시작할 때 필요했던 사이오닉 목줄도 이젠 없었다.

그녀는 점점 커지는 관중의 무관심을 의식하며 조금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히드라리스크는 앞다리에 날카로운 낫 같은 날이 달려 있고 몸은 일련의 단단한 껍데기로 보호되어, 근접전에서 무시무시한 상대입니다."

"물러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로우가 명령했다.

마지못해 허가 뒤로 물러갔다. 괴물은 체중을 뒤쪽으로 실었다. 저그 군단의 힘을 다른 어떤 개체보다도 잘 보여주는 생명체였다. 심지어 저그를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히드라리스크를 알고 두려워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한 모양인 이 관중들만 빼고.

"히드라리스크는 또한 원거리에서도 위협적입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등 가시뼈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사해, 0.5 킬로미터 밖에서도 신소재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정도로 히드라리스크에게 다가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터였다.

로우의 눈길이 청중에게서 다시 그 생명체에게 옮겨갔다. "가만히 있어."

로우는 미소를 지으며 교육 시간을 마쳤다. 오로지 그녀의 목소리와 의지로만 그 생명체를 제어한 것이다. "훈련된 병사들만이 히드라리스크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급적 중장갑으로 무장하는 게 좋습니다."

로우는 잠시 멈추고 미소 띤 얼굴을 히드라리스크에게 돌렸다.

"잘했어. 잘했어, 데니스. 아주 좋아."

데니스에게 딱딱하게 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교육'되었다고는 해도, 순전히 그 크기와 부피만으로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고기를 받아먹는 데니스의 이빨이 그녀의 살갓을 살짝 스쳤다. 아직 거기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잠시 후, 데니스는 시범장 중앙에 놓인 거대한 강철 탁자 위에 편안하고 조용하게 누웠다. 최근 자치령은 저그를 통제하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억압하거나 남아 있는 동지를 완전히 박멸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 이전의 시범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 간에, 빈자리가 많은 걸 보면 로우의 작업이 이미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보셨다시피, 다 자란 이 히드라리스크는 약물 없이도 완벽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약물로 이렇게 하려면 정확한 분량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만 하지요."

외과 시술로 두개골에 덮인 금속판을 벗겨 내는데도 히드라리스크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거미같이 생긴 카메라 프로브가 날아와 접속 포트에 초점을 맞췄다. "실험체의 두뇌에서 자라난 제 3의 뇌엽의 유기적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마른기침만이 대답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누군가가 시가에 불을 붙였다.

이 뇌엽의 목적은 이중의..."

"이... 뇌엽 말인데," 어두컴컴한 관찰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걸 붙이려면 저그를 하나하나 수술해 줘야 하오?"

로우는 아래쪽의 원격 콘솔 불빛 때문에 푸르게 빛나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각진 얼굴에 살이 축 늘어지고, 늙고, 기름기가 흐르고, 원하는 걸 취하는 데 지나치게 익숙해진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의 시가불이 주황색으로 밝게 빛났다.

"네?" 분노와 놀람이 뒤섞여 눈썹을 찡그린 채 로우가 물었다.

"그 끈적끈적한 괴물을 통제하려면 하나하나 마취해 줘야 하느냐는 말이오. 그런 거라면 내가 황제 폐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건 불가능하죠." 그녀는 말했다. "저그 개체수는 무한에 가까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그는 심지어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로우의 작업은 그에게 화를 낼 가치도 없는 것 같았다.

"저희는 PPO 란 물질을 사용합니다. 병원성 프리온 유기체죠. PPO 는 히드라리스크를 감염시킨 뒤 숙주를 유전자적으로 '숙여' 새로운 뇌엽이 자라게 합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 이 뇌엽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모두 이미..."

"헛소리." 그는 로우의 말을 일축했다. "완전히 헛소리요. UED 가 검은 깃발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하려고 했던, 허황된 꿈이지. 우리 모두를 거의 죽일 뻔했소. 그 이야기를 당신 책에서 언급하기엔 너무 바빴나 보지?"

"헛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검은 깃발에서는 방향이 반대였어요."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며 철제 탁자에 원격 콘솔을 내려놓았다. "UED 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공략하는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이나, 자신들만의 군락 지도자를 따르도록 진화된 유기체들한테 말이죠. 이 문제에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래에서부터 위를 공략하는 겁니다. 저그가 가장 약한 층위인, 개체 하나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짜증이 몰려와 로우는 예의를 차리는 것도 잊었다. "당신을 위해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죠."

대답 대신 시가불이 허공에서 음침하게 빛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콘솔 위에서 춤을 추자 괴물이 탁자에서 굴러 내려왔다. 억지로 하는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혐오스럽지만 어딘가 우아한, 부드럽고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 아이는 자기 여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데니스가 미끄러지듯 로우 박사 옆으로 와서 웅크리자 그녀는 더욱 작아 보였다.

팔을 모으고 몸을 움츠려 공격 자세를 취한 채, 데니스는 기다렸다.

관찰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경에 놀라 어둠 속에서 웅성거렸다. 질문한 남자는 자기 자리에서 시가 연기를 빨아들였다.

박사는 명령 코드를 바꾸었다.

데니스가 몸을 긴장시켰다. 팔이 앞뒤로 확확 움직였다. 뛰어오를 태세였다.

"로우 박사, 우리 모두 충분히..."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녀는 외쳤다.

히드라리스크의 움직임은 눈이 쫓아가지도 못할 만큼 빨랐다. 데니스가 시범장 바닥에서 반대쪽의 관찰실 창으로 뛰어오르자 호박색 피부가 번쩍었다.

데니스는 트럭이 부딪치는 것 같은 힘으로 창에 몸을 날렸다. 낮처럼 생긴 날카로운 뼈가 장애물을 미친 듯이 할퀴었다. 데니스가 뒤로 몸을 젖히더니 다시 한 번 유리에 몸을 부딪치자, 창이 부서졌다.

관중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질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비명뿐이었다. 이쯤이면 저들도 그녀가 이 생명체를 어떤 수준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이해하리라.

"목표물을 처치해라." 질문한 남자가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다.

로우 뒤에서 금속 장화가 바닥에 덜그럭거리며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병 네 명이 문을 부수고 시범장에 난입함과 동시에 무기를 치켜들었다. 데니스는 돌아서서 이들을 보기도 전에 죽을 터였다.

"안 돼!" 오만한 태도를 벗어던지고 로우가 부르짖었다. "몇 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녀는 고함쳤지만, 총구와 데니스 사이를 막지는 않았다.

"저걸 불러들여." 목소리가 말했다.

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명령을 입력했다.

팔을 거두고 데니스는 반대쪽으로 뛰어올라 육중한 소리와 함께 착지했다. 그러고는 뒤로 굴러, 로우 박사 옆에 편안한 자세로 섰다.

위쪽에서 은밀한 소요가 일었다. 바지와 겹옷이 어지럽게 서로 스쳤다. 출구가 광하고 달혔다.

"타이밍 좋았다, 제군들." 그가 말했다.

해병들은 총구를 내리지 않았다.

로우 박사는 힘이 빠져, 가쁜 호흡을 숨기고 침착한 태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다.
시범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던 것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 아이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시범을 보인 거라고요.
보세요."

그녀는 실험 가운데서 외과 수술용 프로브를 꺼내 데니스의 머리에 뚫린 구멍에
겨눴다.

"뇌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려도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녀는 자세를 유지했다.
노출된 뇌에 프로브가 거의 닿을 듯했다.

로우는 기구를 치우고 그 생명체에게 등을 돌렸다. 콘솔을 다시 조작하자 데니스가
몸의 긴장이나 추진력을 완전히 없애고, 힘없이 축 늘어졌다.

"이제 다른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질문자의 시가불이 깜박이며 어둠 속을 가로질렀다. "충분히 봤네. 그 애완동물을 치우고, 내 부하들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게." 그가 시가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자 주황색 불빛이 밝게 타올랐다. "그다음에 얘기 좀 하지."

그의 이름은 가르였고, 군인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로우가 전에 만난 다른 장관이나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단지 군인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군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시범이 불러일으킨 흥분이 가시자, 로우는 풀이 죽고 자신의 행동에 적지 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순식간에 힘없는 과학자에서 교만한 여주인이 되었다가, 결국엔 데니스의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굴지 않았는가.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저희는 지금까지 히드라리스크를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PPO 는 히드라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종에 특별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길들이기 쉬워서 히드라리스크를 택한 건가?"

"현실적인 접근이죠."

"히드라리스크가 저그 군단의 근간을 이루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체여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로우는 주저했다.

가르가 한숨을 쉬었다. "더 만들 수 있겠지?"

"네, 사로잡고 감염시킬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요. 교육된 저그 자체가 병원체를 몸속에 지니고 다니며 다른 개체에 옮길 겁니다."

가르가 입꼬리에서 연기를 내뿜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놈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지?"

"PPO 에 제대로 감염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로우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굉장한 확신으로군."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호 무결성 검사와 신진대사 조절이 이루어지지요. 게다가 슝누스라고 불리는 최후의 보루도 있고요. 슝누스가 발동하면 저그의 뇌에 생긴 기생 뇌엽이 몸에 맞지 않는 신경 신호를 폭포처럼 쏟아내, 몇 초 안에 숙주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가르는 사무실 화면에서 저그가 군인처럼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는 모의 영상이 재생되는 걸 보며 생각에 잠겼다.

"더 큰 시설이 필요하겠군." 그는 말했다. "자원도."

"이건 성공적인 시범 프로그램이었을 뿐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허튼소리." 그는 그냥 숨을 쉬듯 무심하게 박사의 말을 잘랐다. "해리스, 통신은? 황제 폐하께서 시간을 내 주셨나?"

그의 비서가 곧바로 나타나 출입구에 섰다. "1 분간 통신 접견을 허락받았습니다."

"좋다." 가르가 몸을 돌려 로우를 가리켰다. "아크튜러스 멧스크 황제 폐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마치 그녀가 창조주를 만나기라도 할 것 같은 말투였다.

"폐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네가 먼저 폐하께 말을 걸 수는 없다. 그분의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로우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잘해보야 과학부 차관 정도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말문이 막혔다.

"진정해, 로우 박사." 안심시키듯 가르가 말을 이었다. 너무 쉽게 나와서 아무 뜻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었다. "황제 폐하께서는 실패자만 벌하시니까."

자치령의 휘장이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빛나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보안 회선"이란 글자가 떠 있었다.

가르는 공손한 태도로 휘장을 바라보았다.

턱수염이 난 얼굴이 나타나자 로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화폐나 길거리의 홀로그램 선전물, 자치령의 모든 통신에서 수천 번은 본 얼굴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집중하고 있으나 여유롭고, 권위 있으나 위압적이지는 않은.

"가르 대령," 가르 자신이 로우에게 말할 때와 똑같이 딱딱하고 성마른 어조로 황제가 말했다. "이 '교육생 프로젝트'가 뭔지 설명해 주겠나."

"이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황제 폐하.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흐린 날의 햇살처럼, 긍정적이지만 열정적이지는 않은 대답이었다.

"흠." 멩스크는 화면 밖의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완전한 통제라. 그녀에게서 주요 병력을 빼앗을 수 있겠군." 그는 무슨 생각에선지 미소 지었다. 황제의 이는 로우 박사가 기대한 것처럼 하얗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위로 올라와,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샌드라 로우 박사," 황제가 서론을 열었다.

"네?"

가르가 장화 밑창으로 그녀의 신발을 아주 살짝 건드렸다.

"예, 황제 폐하." 로우는 말을 바꿨다.

"너의 연구가 지닌 가능성에 꽤 감명받았다." 멩스크는 진지한 얼굴로 얘기하더니 날카롭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말해 보라. 이 '교육생 프로젝트'로 외부의 위협, 칼날 여왕을 제거할 수 있는가?"

로우 박사는 망설였다. 황제는 군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케리건에 대해서만 물었을 뿐이다. 너무 버거운 목표였다. 박사는 등지, 심지어 군락까지도 고려해 보았었다. 하지만 여왕 자체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 건 무엇이겠는가? 보균체들이 다른 종에게 PPO 를 옮길 수 있게 만드는 코드만 찾아내면 된다. 그리고 나면 시간문제였다. 나머지 군단은 곧 줄줄이 쓰러질 테니까.

"황제 폐하,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되면 저그 군단이란 것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치령이 통제하는 군단만 남겠죠."

멩스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머리를 몸에서 잘라내고 나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목소리에서 그의 몸속 어디엔가 남아 있는, 아직 아물지 않아 쓰러린 상처가 느껴졌다.

황제의 눈이 회색으로 타오르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내가 너를 지원할 것이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라." 경고에 이어 그의 눈길이 가르를 향했다. "가르 대령, 결과가 중요하다.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황제 폐하." 가르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멥스크가 순간 시선을 돌렸고, 통신은 그렇게 끝났다.

"좋아." 가르가 드디어 몸을 바로 펴며 말했다. "자네의 그 형편없는 예의범절만 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우 박사가 현기증을 느끼며 물었다. "언제 시작하는 거죠?"

가르가 킬킬거렸다. "10 분 전부터. 네 연구에 대한 상시 감사 결과에 기초해, 모든 요청이 신속히 통과되었다. 너는 이제 자치령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아무 우주 생물학자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로우 박사는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녀의 연구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더는 장관이나 고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겨우 10 분 전이요?" 즐거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그녀가 물었다.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가르가 말했다.

로우의 원격 콘솔에서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벨소리가 났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지만, 그렇게 느끼기엔 너무 날카로운 소리였다.

메시지를 읽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그녀는 속삭였다. 소금 위의 민달팽이처럼 그녀의 자긍심이 쪼그라들었다.

가르는 막 방을 떠나려다가 화면을 쳐다봤다.

"이게 뭐죠?" 그녀가 대답을 요구했다. "인간 상호작용 실험이 내일 시작된다고요?!"

가르는 무안한 듯 씩 웃었다. "미안하지만, 그보다 빨리 지원자를 여기 데려올 수는 없었다. 그게 문제가 되나, 위대한 히드라리스크 조련사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질렀다.

그는 서류 가방을 철컹 소리 나게 닫고 성큼성큼 사무실을 나섰다. 로우 박사는 반사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어쨌든 히드라리스크 먹이 주는 것을 감독해야 했다.

"아, 해리스, 시스에서 온 파일도 보내. 어쩌면 드디어 그 반역자들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가르와 그의 비서는 이미 이 문제는 끝났다 여기며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둘의 장화가 야단스럽게 바닥에 끌리며 텅 빈 벽에 시끄럽게 메아리쳤다.

히드라리스크 우리에게 도착할 때쯤에는, 그녀도 모든 것이 아직 잘 통제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거의 납득시킬 수 있었다.

데니스가 우리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느릿느릿 기어나왔다. 콧소리와 기분 좋은 그르렁 사이 어디쯤 되는 낮은 울음소리가 벽에 메아리쳤다.

데니스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시 소리를 냈다. 이번 건 조금 더 "제발요?" 같은 물음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오늘 중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았다.

로우의 콘솔이 뱅뱅거렸다. 호기심에 그녀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사로잡혀 교육된 저그의 정신 활동이, 화면 안에서 눈부시게 밝은 푸른 파동들로 추적되고 있었다. 장비나 필터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만큼 급격한 정신 활동이 감지된 구간이 있었다.

로우는 한쪽 팔을 내밀었다. "기다려, 데니스."

히드라리스크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박사를 주시했다. 그녀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간단한 진단을 요청했다. PPO 뇌엽은 멀쩡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데니스는 박사가 지난주의 교육 기록을 살펴보는 10 분 동안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 급격한 정신 활동은 어디에도 없었다. 베이마와 나머지 신호 분석

연구원들을 닦달해, 이게 뇌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기록 오류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할 터였다. 모니터링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황제가 비용을 대는 이상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아. 저녁 먹을 시간이다." 그녀는 이것이 시급한 주의를 요구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마지막 명령을 지운 뒤 데니스에게 말했다. 당장은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녀가 벽에 붙은 장치에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다. 거기엔 지방이 적당히 섞인, 각진 배양 고기가 담긴 금속 접시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 팔 길이 정도로 접시를 내렸다.

"기다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데니스는 그녀와 음식 둘 다를 볼 수 있도록 그 사이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몸을 웅크렸다. 뛰어들고 싶은 것을 참으며 희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잘했어!"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데니스는 금속 접시에 달려들어 콘크리트 바닥에 고기 조각을 내동댕이치고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집어삼켰다. 고기를 가는 소리 위로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적어도 이 관계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데니스가 로우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녀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일도 이렇게 쉬우면 좋으련만. 데니스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의 예상만 빼놓고. 로우는 언제나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이미 해낸 셈이었다.

다 잘될 거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데니스가 접시를 바라보았다. 턱으로 접시를 쿡쿡 찌르자 빈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전히 웅크린 채로, 데니스는 붉게 빛나는 눈으로 로우 박사를 올려다보았다.

로우는 마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어휴, 이 먹보야." 그녀는 부드럽게 데니스의 머리를 토닥였다. "안 돼. 많이 먹었어."

데니스는 칭얼거리듯 그르렁 소리를 냈다.

"안 돼. 그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로우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데니스가 눈을 껌벅거렸다. 눈앞에서 쓴 총알도 튕겨낼 만큼 단단한 눈꺼풀이 닫히고 열렸다.

"알았어. 알았어. 딱 한 번만이야. 오늘 참 잘했으니까."

로우는 접시를 다시 채우려고 몸을 돌렸다. 히드라리스크의 눈이 그녀를 쫓았다.

"하지만 내가 그러겠다고 한 거야. 결정하는 건 나라는 걸 명심해야 해."

데니스는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여유롭게 두 번째 접시를 비웠다.

로우는 막 들어오는 수송선을 맞이하려고 발길을 서둘렀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고 가르가 깜짝 방문을 했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훈련장을 보았다. 데니스가 이끄는 '교육생'들이 모의 채굴 시설을 통과하는 것을, '길 잃은 늑대'라는 별명이 붙은 소대가 지켜보고 있었다. 저그는 건물을 점령하지 않지. 그녀는 생각했다.

가르가 한낮의 밝은 빛을 받으며 수송기에서 내려 활짝 웃었다. 제복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상원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군. 사령관은 물론 황제 폐하께서도 자네의 연구를 지지하고 계시네. 축하할 일이야, 박사." 그가 기대에 차 손을 내밀었다. 로우에게 처음 보이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가르의 손을 잡았다. 수송선에서 내리기 직전에 물수건으로 닦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차갑고 살짝 습기가 있었다.

손을 거두고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가르의 얼굴이 풀어졌다. "좋아, 좋아. 인사는 그쯤하고,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논의할 때로군."

"무슨 상황이에요?" 로우는 물었다. "방금 말씀하시길..."

"그건 오늘 아침이었고, 현재에 대해 얘기해야지. 예를 들면 현장 투입 결과를 얻어낼 방법이라든가."

"제 히드라들이 도시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나누고 나서 하죠."

"자네의 시야는 제한적이야.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해. 사실, 적합한 시험대를 이미 찾아냈지."

로우는 무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제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저 아닌가요?"

"자치령의 프로그램이지." 가르가 노련하게 받아쳤다. "시스는 베스핀 가스를 채취하는 거주지가 있는 변두리 행성일세. 무리를 잃어버린 저그가 최근 그 행성의 주 정제소로 몰려들고 있다더군. 정보부의 예측에 따르면, 거주민들은 순식간에 당할 거야. 그런 일을 막으려면 서른여섯 시간 안에 군대를 투입해야 해."

"제 '교육생'들을 하루 반 안에 전장에 투입하고 싶으시단 건가요? 다른 저그들을 상대로?"

"그리고 '싫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걸세. 특수 연구 부대 내의 우주 생물학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직접 자네의 연구 결과를 지켜볼 거야. 그리고 그들과 대응되는 군사 조직에서도."

로우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로우에게 항의할 의지가 없음을 알아차린 가르가 웃음 지었다. "힘내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소탕 작전이 될 예정이니까. 후속 전투의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후속 전투요?"

"광산 관리자들이 좀... 까다로워. 불평분자들이지. 폭도들이야. 정말로."

내부적 적용.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로우가 말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냥 그 작자들을 반역자라고 생각하라고, 로우 박사. 자치령이 어떻게 반역자들을 벌하는지는 알겠지."

로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인간을 저그에게서 보호하는 거였다고요! 그건...!"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저그가 우리가 선택한 목표물에 달려들게 하는 거야."
가르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갑고 딱딱해져, 따뜻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시스의 거주민들을 저그에서 구출한 뒤에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들면, 다음 시험 대상이 되는 거지."

"교육생들을 인간에게 사용한다면, 그들이 인간을 죽이는 게 제 책임이 되잖아요."
로우 박사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실험체들은..."

"네 실험체들은 무기야. 순진한 소리는 집어치워."

분노가 로우 박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돌파구, 자신의 천재성을 부여잡았다. 어쩌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아귀를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을 터였다.

"알겠습니다, 가르 대령님." 긴장이나 반항기 없이 고른 어조로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말보단 행동일세. 아니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프로젝트 담당자를
갈아치울 테니까."

로우 박사는 자신의 손톱이 왼쪽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적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걸 보여주자고." 가르는 고전적인 라이터로 새
시가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뺀 뒤, 푸른 연기를 내뿜었다.

시스의 하늘에서는 딱지처럼 하늘에 매달린 구름을 번개가 할퀴고 있었다. 구름
사이에서 붉은색과 분홍색 하늘이 스며 나왔다. 바람에서는 뼈 냄새가 났다. 금속
탑에서 새어 나오는 가스 폐기물이 눈부신 노란색으로 타오르며, 정제소를 향해
전진하는 수백 마리 저그의 등껍질을 밝혔다.

부사관의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지지직거리며 흘러나왔다. "망령들이 지상을 봉쇄할
것이다. 우린 전장이 아직 후끈할 때 돌입한다."

"자, 한바탕 할 준비가 된 건 누구지?!"

"길 잃은 늑대들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하나로 답했다.

데니스와 히드라리스크 무리가 화답하듯 요란하게 으르렁거렸다. 최근 머리에 칠한
줄무늬가 수송선의 실내등 불빛을 반사해 거무죽죽한 주황색 빛깔을 띠었다.

수송선의 속도가 줄어들고 해치가 미끄러지듯 열렸다. 시스의 대기가 품은 무덤
냄새가 밀려들었다.

"자, 뛰어! 뛰어!" 누군가 소리쳤다.

인간들은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뒤따르는 교육생들과 침묵 속에서
넓게 대열을 전개했다. 로우가 침착하려고 애쓰며 뒤를 쫓았다. 원격으로 교육생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그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감독했다.

허공에서 나타난 자치령 망령들이 포문을 열고, 원거리 공격 대형을 갖춘 적
저그들을 밝혔다. 눈부시게 밝은 붉은 창들이 그들을 불태우며, 지나간 자리에 그슬리고
불탄 껍질만을 남겼다.

망령과 지상군은 거주지 문 앞에 몰려든 저그 무리를 비뚤어진 X 모양으로 갈랐다.

저그 병력은 몰려드는 자치령 지상군과 망령을 상대하고자 나뒀 수밖에 없었다.

화염방사병이 쏘아대는 빠른 플라즈마 불꽃이 비틀거리는 몸뚱이들을 밝혔다.

교육받은 히드라들이 뒤를 따르며, 아직 뜨거운 땅에서 모든 것을 베고 뜯고

날려버렸다. 그들은 반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찢어발기며 원거리 방어 가능성

봉쇄했다. 그동안 적은 저그의 통제를 받지 않는 히드라리스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교육생들은 거기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흥미롭군. 로우는 생각했다. 이럴 거라고는 그녀도 상상하지 못했다.

데니스와 그의 무리는 비어 있는 듯한 하늘로 몸을 돌렸다. 날개 달린 흐릿한 형체가

소용돌이치는 구름 사이로 지나갔다. 뮤탈리스크 무리가 폭격을 준비하며 빠르게

날아들었다. 교육생들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총소리와 혼돈 위로 경고를 알렸다.

"위쪽! 위쪽!" 로우가 소리쳤다.

교육생 히드라리스크들은 뮤탈리스크가 사거리 안에 들어오자 가시뼀을 쏘았다.

야생의 저그들은 썰기 벌레 세례로 대응했다. 자동 사격이 섬광처럼 이 광경을

비추었다. 찢어진 뮤탈리스크들이 땅에 떨어졌고, 갈라진 껍질 사이로 붉은색이 배어 나왔다.

"망령! 아래는 아군이다! 공중만 공격해!" 로우가 통신기에 대고 소리쳤다.

분사구에서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망령들이 폭격을 그만두고 급선회했다.

뮤탈리스크와 교전해, 지상군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야 했다. 운만 좀 따라 준다면, 둘로 나뉜 적 사이를 망령들이 가로지르며 그들을 더 떼놓을 수 있을 터였다.

썩기 벌레가 계속해서 자치령 돌격대 위로 쏟아졌다. 저그는 특정 목표물을 조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몰려와 지상 장악력을 되찾을 때까지 지상에 있는 적들의 발을 묶으려는 것이었다. 교육생 몇 마리가 썩기 벌레에 맞아 체액을 흘리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가리 찢겨 쓰러질 때까지 가시뿔을 쏘아댔다. 로우는 그중에 데니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은 달랐다.

"로우 박사님! 병력 상태 확인!" 부사관이 외쳤다.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개체가 너무 많았다. "신호를 많이 잃었다! 적어도 반은 줄어든 것 같다!"

"병사는 죽는 게 일이죠." 대답이 돌아왔다. "남은 병력은 서쪽 경계로 가서, 적 저그가 재정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로우는 공격이 어서 끝나길 바랐지만, 저그가 무슨 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실험이 평가되는 것은 금방이지만, 전투는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었다. 교육생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굳세고 맹렬하게 싸워, 자신들의 야생 형제들까지도 차가운 시체로 만들었다.

시스에서 낮이라 불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약하고 창백한 분홍빛이 넘실거리며 모든 것을 덮었다. 다수의 저그와 일부 인간의 뒤틀린 시체들이 채굴 시설 앞 들판에 무수히 널브러져 있었다.

마지막 저그의 죽음이 보고된 뒤 정확히 15 분 후, 반짝거리는 가르의 수송선이 거주지 문 앞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개인 경호 부대가 먼저 내려 방어 대형으로

서고, 한참 후에 가르가 내렸다. 그가 내렸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게 확실하다는 듯, 다른 자치령 수송선들도 뒤이어 착륙했다.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실제 전장에서의 시범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바짓가랑이에 피가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체를 피해서 걸어갔다.

잘 손질한 회색 제복을 입은 가르가 위풍당당하게 섰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눈에 띄게 빛났다. "병사들을 소집하라." 그는 짧게 말했다.

로우의 장갑은 교육생들의 부상을 치료하느라 팔꿈치까지 저그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너무 많은 교육생이 죽었다. 그들이 쓰러지는 걸 보는 건 갈수록 덜 괴롭긴 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다.

그녀는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가르가 다가오는 걸 보고 발을 멈춘 채로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뇌가 활동을 멈춰버리기 전에 뭔가 할 일을 주려고 그녀는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히드라리스크의 장갑 재생 기술에 더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교육생들이 몇 마리 더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로우, 병사들을 소집해." 가르가 건조한 목소리로 낮게 으박질렀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로우가 전장으로 휩 몸을 돌렸다. "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가르가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로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가르는 시가 연기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다 끝나면 알려주겠다."

이해하는 데 잠깐 시간이 걸렸지만, 현실은 저절로 의문을 해소하고 자신을 드러냈다.

"애초부터 이 일을 시킬 작정이었군요. 그렇죠?"

"놈들을 모으거나 해."

교육생들이 느릿느릿 다가왔다. 녹초가 되고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들은 길 잃은 늑대 부대 뒤에서 대기 상태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길 잃은 늑대들은 자극제의 효과가 떨어져 전투복 안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가르가 열린 문을 쳐다보며 입술을 핥았다. 부서진 벙커에서 천천히 연기가 흘러나왔다.

"전진해라. 시설을 장악하고, 반항하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알겠습니다." 굵히고 더러워진 원격 콘솔 위에서 로우의 손가락이 춤을 추다가, 멈췄다. 교육생들은 몸을 움찔하며 똑바로 섰다. 데니스는 눈앞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사납게 몰아쳤다.

"당장 공격해." 가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 쓰레기 놈들은 교육생들을 지원해라. 안 그러면 교육생들한테 밥으로 쥐 버릴..."

"완료했습니다!" 로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보지도 않고 명령을 입력했다. 새로운 목표물, 새로운 우선순위를.

히드라리스크는 몸을 웅크렸다가 길 잃은 늑대들을 뛰어넘어 자치령 정규군, 그리고 그들이 보호하던 군사 고문과 과학자들을 덮쳤다.

낮처럼 생긴 앞다리 칼날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비고 사지를 잘라냈다. 날카롭게 줄을
잡은 비단옷은 방어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 두꺼운 전투복이었더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로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자신이 구역질을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중지시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로우의 것이었다. 가르가 교육생들로 사람을 처리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그 바람을 이뤄
주리라.

상사가 순시를 하는 동안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가르의
경비병들은 몸이 굳었고, 그런 그들을 교육생 부대가 사납게 덮쳤다. 경비병 중
일부만이, 난도질당하기 전에 총을 쏘보기라도 할 수 있었다.

가르는 공포에 하얗게 질렸다. 그가 더듬거리며 허리춤의 무기를 찾는 사이 무언가가
그의 몸을 휩 덮쳤다. 가르의 몸은 어깨에서 반대쪽 엉덩이까지 잘려, 천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

막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장면을 보는 것도 괴로웠던 로우는 피가 솟구치기 전에 등을 돌렸다. 가르의 몸은 철썩 소리를 내며 평평한 돌 위에 떨어졌다.

길 잃은 늑대들은 순간 공격 태세를 취했지만,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몇 명은 무디고 공허한 총소리에 반응해, 피할 곳을 찾아 달려갔다.

혼돈스럽게 이어졌던 지난 전투와 달리, 이 공격은 마치 수술처럼 정확하게 수행되었다. 30 초도 지나기 전에 자치령 정규군, 장관, 과학자들은 선 자리에서 시체가 되어 있었고 교육생은 모두 멀쩡했다.

수송선들은 출입구를 닫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어야 할 이번 작전은 관객이 참여하는 대학살극으로 막을 내렸다.

로우는 수송선이 떠나게 그냥 두었다.

길 잃은 늑대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자기들의 수송선 주위에 방어 대열로 서 있었다. 수적으로 교육생들이 우세하긴 했지만, 아직 압박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로우는 눈물을 멈추려고 애를 썼다. 가르는 괴물이었고 이런 벌을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가르만이 괴물이었던 건 아니다. 그저 손이 닿는 곳에 그가 있었을 뿐. 결국, 가르를 죽인 것은 그녀가 아니던가? 모두가 그녀의 명령에 의해, 코드를 입력한 그녀의 손에 죽은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길 잃은 늑대 부대의 부사관이 물었다. "박사님이 아직...?"

"그래, 제어하고 있다." 로우가 답했다. "내가 공격 명령을 내렸어."

데니스와 다른 히드라리스크들은 대기하고 있었다. 머리에 그려진 노란색 줄무늬에 잔뜩 튼 피는 아침의 온기에 말라붙고 있었다. 교육생들은 바라보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로우는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을 꼭 참았다. "놈들이 교육생들을 손에 넣게 할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용할 작정이라면 말이야."

돌에 신경질적으로 군화가 스치는 소리,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만이 주변을 채웠다.

화면에서 뱅뱅거리는 소리가 났다. 로우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그들에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남을 죽이는 건 차마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죽는 것은 지켜보아야만 할 터였다. 그만큼은 빛을 졌다고 생각했다.

"정말 미안해, 데니스." 콘솔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녀는 거친 숨을 내뿔었다. "숨누스를 발동시킬 시간이야." 약속처럼 그녀는 말했다.

로우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숨누스를 발동시켰다. 필생의 역작을 잣더미로 만들려니 목구멍에 신물이 넘어왔다. 곧. 아주 금방. 저들은 몸을 뒤틀고 죽을 것이다.

히드라리스크들은 계속 대기 상태로 편안하게 서 있었다. 경련도 없었고, 고통스러워하는 기미도 전혀 없었다.

화면이 계속 뱅뱅거리자 마침내 로우는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급격한 정신 활동 증가가 다시 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순간적이고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새로운 패턴, 격렬하고 불규칙적인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로우의 프로그램은 깨끗이 지워졌다. 모든 통신 접점이 오프라인 상태였다. 불가능해.

그녀는 진단 시퀀스를 입력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다. 쿵광거리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맙소사." 로우는 속삭였다. "저들은 이제... 난 이제..."

생존 본능이 그간의 헌신이나 지켜주려는 마음을 모두 몰아냈다. 이제 그런 감정이 자리 잡을 여유는 없었다. 대신, 로우의 머릿속에는 이 생명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오만 가지 방법들이 떠올랐다. 가르와 다른 사람들이 당했던 바로 그 방법들이.

"쌈! 전부 쌈 버려!" 자신의 목소리가 낮설게 들렸다. "저것들이 풀려났어!"

"진압해! 당장!" 부사관은 소총을 들어 발사하며 고함을 질렀다. 로우는 오른쪽 발이 잘려나가는 것을 겨우 모면하며 엄폐물로 몸을 날렸다. 두려움이 가슴속을 파고들어 그녀를 온통 채우고,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정말 끔찍한 것은 기만 자체보다도, '저들은 언제부터 길들여진 척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로우는 수송선의 착륙 버팀대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다.

가시뻐가 허공을 휩휩 가로질러 수송선 동체 아랫부분에 꽂혀, 선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상태로는 수송선에 올라탄다고 해도, 대기권을 벗어나면 죽을 것이 뻔했다.

얼마나?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알 수가 없었다.

데니스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그때도? 언제부터지? 실제로 통제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 걸까?

"달려!" 로우는 소리쳤다. "정제소로!" 그녀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몸을 일으키고 숨은 곳에서 튀어나왔다.

길 잃은 늑대들은 마지막 수송선이 이륙하는, 아니 이륙하려고 애쓰는 사이 순식간에 당하고 말았다. 엔진 소리에 자극받은 히드라리스크들은 선체에 마구 가시뻐를 쏘아댔다. 6 미터나 떠올랐을까, 수송선은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기우뚱했다. 히드라리스크는 계속 쏘았다. 가시뻐가 휩휩 날아가는 소리가 총소리를 압도했다. 수백 개의 가시뻐가 동체에 꽂혔다. 이륙 중 받은 타격이 너무 커, 수송선은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제어실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자 소음이 잦아들었다.

엔진에서 큰 불길이 솟구치면서, 수송선은 땅에 떨어졌다. 땅이 움푹 패고 주변의 땅이 검게 그을리더니, 종국에는 수송선도 불길에 휩싸였다. 구출선은 영영 오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그 폭발이 기회가 되었다.

로우는 달렸다. 몸이 뚱뚱 떠서 무거운 물이나 수초를 헤치며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문까지 20 미터, 어쩌면 그보다 적게 남았다. 누더기를 걸친 거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오라고 그녀를 재촉했다.

뒤에서 째지는 울음소리와 돌에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로우가 가만히 서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 생명체들은 너무나도 쉽게 양쪽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리고는 얼어 버린 거주민에게 달려들어 몸을 찢어발겼다. 그들은 병사도 아니었다. 반항은 없었다.

히드라 몇 마리가 로우 앞에 멈춰서더니 주변을 빙빙 돌았다. 낮처럼 생긴 앞다리 칼날을 치켜들고, 붉게 젖은 입을 크게 벌린 채 씹씹거렸다.

그녀는 쓰러질 듯 멈췄다.

뒤쪽에서 들려오던 총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살과 뼈의 소리만이 남았다. 로우는 포위당했다. 용광로에 처박힌 참새의 날갯짓처럼, 호흡이 불규칙적으로 터져나왔다.

저그는 물러섰다. 발톱은 아래로 내린 채였다. 아직 피에 젖은 발톱도 있었다. 로우의 시선이 마구 흔들렸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돌처럼 가만히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치 하나처럼, 저그는 뛰거나 미끄러져서 멀어졌다. 로우는 숨을 토해냈다. 설명할 길이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명령이 수행된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그들에게 그녀의 존재가 각인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된 것이든, 그녀는 안전했다. 무사했다. 저그는 자기를 떠났다. 로우는 정제소 문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어쩌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히드라리스크의 혀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더듬으며, 화난 듯 당기던 기억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당장에라도 손을 잘라내고 싶은 기분이었다. 뱃속에 뱀이 등지를 틀기라도 한 것처럼 혐오감이 그녀의 오장육부를 쥐어뜯었다. 로우의 손은 아직

축축했고, 그 끔찍한 느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영원히 그녀를 놔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뒤쪽에서 자갈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그런 생각을 몰아냈다. 돌아보지 않아도 무엇이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있었다. 히드라리스크였다. 배를 덮은 딱딱한 껍질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데니스의 두개골에 붙은 금속판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데니스임이 분명했다. 그는 로우가 고기 조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착하게만 굴면 고기를 던져줄 것처럼 기대에 찬 눈초리로 로우를 쳐다보았다.

데니스가 이번에는 조금 안달이 난 것처럼 그르렁거렸다.

"데니스?"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데니스는 로우의 첫 번째이자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였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울 터였다. 그녀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실험체였다.

그녀는 저그가 밀어닥친 거주지 문을 바라보고 다시 데니스에게 몸을 돌렸다.

아침나절의 분홍 햇살에 장밋빛으로 보이는 몸은 편안한 자세였지만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는 아니었다.

로우는 천천히 데니스에게 다가갔다. 어쩌면 프로젝트를 재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잠깐 좌절을 겪었을 뿐, 이제 자치령의 간섭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데니스의 몸 안엔 PPO 가 살아 있었다. 데니스에게서 배운 걸 이용해 저그의 위협을 영영 없앨 수도 있다. 그녀는 할 수 있을...

팔을 위로 치켜드는 데니스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무력하니까.

"안 돼." 로우는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너만은. 너만은."

그녀는 쏜살같이 도망쳤지만, 어차피 그를 따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속도였다.

* * * * *

칼날 여왕은 잠시 정신을 집중해, 차 행성에서 감각을 먼 곳으로 뻗쳤다. 시스에 있는 그녀의 아이들이 인식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감각을 더 좁혀, 마치 자신이 히드라리스크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추적의 흥분을 음미했다.

케리건은 뜨겁고 공허한 바람을 느끼고, 쓰러진 자들의 피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감히 자신의 것, 자신만의 것을 탐한 저 외롭고 멍청한 여자의 고통과 공포를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왕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보병 몇 마리를 대가로 얼마나 많은 자치령 지도자들을 해치웠던가? 체스에서 졸을 내주고 주교와 성, 심지어 가짜 여왕까지 잡은 것 아닌가?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 소식을 들은 멩스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칼날 여왕은 여자가 내뿜는 공포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여자는 옛 애완동물에게서 겨우 한두 발짝 앞에 있을 뿐이었다. 케리건은 저 가짜 여왕을 조금 더 살려 두리라 마음먹었다.

그리 오래는 아니겠지만.